Miss and Take

(막6:14-29)

14.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5.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16.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17.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19.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21.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22.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24.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5.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26.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27.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28.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29.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miss and take>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miss and take'
‘miss and take’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mistake ‘실수하다’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miss and take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동료 부목사님들이 나누던 대화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는데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에게 노트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notebook은 없는데 note and book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치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당시는 notebook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notebook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mistake를 좀 떼어놓으면 miss and take, miss라는 뜻은 ‘무엇을 놓친다’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서 놓치든지 아니면 도달해야 될 것에 미치지 못하든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든지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든지, 하여간 놓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take는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차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짧은 영어로 길을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 어디를 가는데 그 호텔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turn 하고 철길을 만나면 cross over해서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네가 찾는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멀뚱멀뚱 합니다.

한참 설명한 뒤 내가 못 알아듣고 뻥하니 있으면 꼭 잊지 않고 갖다 붙이는 한 마디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말을 해요.
‘You can't miss it.’ 너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다.
제가 만일 어느 교회를 물어봤다면 ‘The church is the only one on the road.’
‘그 길에서는 교회라고는 그것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You cannot miss it. ‘전혀 그것을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다’ 이 말을 합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죠, 'You can't miss it.'

이 miss가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보통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나쳐버리다’ ‘시야에서 놓쳐버리다’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딱 한번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역의 정점, 그것을 준비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죽음을 대할 때마다 기가 딱 막혀버려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까지는 세례요한의 삶과 외친 메시지와 참 잘 어울려요.
왕이라고 하는 자가 제수씨를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이럴 수는 없죠, 이래서는 안 되죠.
그것을 비난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죽는 과정을 보면, 그 제수씨였던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헤롯왕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얼마나 요염을 떨면서 춤을 추었던지 헤롯왕이 완전히 뽕 가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권력자의 마음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자 간악한 살로메와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목이 소반에 담겨져서 그 타락한 연회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참 죽음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소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의 감정놀음에 희생제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분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내버려두셨을까?
그리고 왜 이 죽음을 뒤늦게 (이 죽음은 앞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곳에서 능력을 행하자 헤롯왕이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을 듣고는 그걸 계기로, 이곳에서 제자파송이 일어나고 그리고 30절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파송결과를 보고하는 사이에 삽입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 세례요한에 대해서 아무런 미안한 마음이 없으십니다.
아마 세례요한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분함과 안타까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 어디 있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파송 받을 때, 전대를 갖지 말고 배낭을 갖지 말고 두벌 옷을 갖지 말도록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돈이 들어간 전대, 생활필수품들이 들어가야 될 배낭, 얼마나 내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천국이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
천국을 전하려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전해야 되는데, 내 지갑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너희가 천국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의 이 죽음을 여기다 삽입시킨 이유는 지갑보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하면 내 몸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내 육체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

례요한의 죽음을 이곳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이 세례요한에게도 안타까울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안타깝거나 세례요한에 대해서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세례요한이 가까이 왔다고 한 천국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나 하면 세례요한의 육체보다도 세례요한의 마음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만일에 자기의 목 베임을 당하는 이 육체보다도 더 가까이 와있는 천국을 miss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다면 이 죽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세례요한에게 못할 짓을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나 하면, 옷을 빨아서 널어놓았는데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옷이 바람에 떨어졌을 때, 많은 경우에 세상모르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이 그 옷을 마구 물어뜯고 발로 짓이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몸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천국을 miss하지 않고 충분히 푹 잠겨서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있을 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고기로 만든 옷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벗어놓은 옷이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벗어놓은 옷이 찢겨진다고 내가 찢기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나는 내 몸을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붙어서 바늘 끝 하나만 들어와도 아파서 기절하게 될까요?
철저하게 천국을 지나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miss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몸을 take 한 겁니다.
천국을 miss하고 세상을 take한 것, 이게 바로 mistake 실수예요, 그리고 이 실수가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 죄입니다.
내 죄가 뭐냐 하면, 가까이 온 천국을 miss해서 지나쳐버리고 세상을 take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돈 걱정이 있지요?
miss하고 take한 겁니다.
천국을 miss하고 그리고 돈을 take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식을 걱정하고 있지요?
천국을 miss하고 자식을 take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mistake입니다.
그리고 그 mistake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miss and take, 붙잡아야 할 것은 지나쳐버리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은 게 mistake 입니다.
천국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자, 천국을 지나쳐버리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에 마음이 먼저 머물게 되면, you cannot miss it, 도저히 지나쳐버릴 수 없을 만큼 뚜렷한 천국에 마음이 머물게 되면,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지중에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겨자씨 비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그 천국이라는 현실이 점점 더 커지면서 느껴지고, 부지중에 자라는 씨앗처럼 내가 알게 모르게 천국이 내 안에서 커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한 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천국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서 내 마음이 끝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머문다는 거예요.
마음이 끝장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소원하고 기획하는 것, 뜻하는 것, 무슨 말로 하든지 내 마음은 제일 가까이 있는 천국에서 끝장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천국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천국을 통해 충분히 감사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문제는 끝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없어집니다.
이 상태가 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파송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와서 살 때, 전부들 아직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천국에서 끝장이 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부터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커도, 그 값이 비교도 안 될 만한 대단한 천국을 이미 가장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바가 없는 상태가 돼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사회로 교회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됩니다.
아무리 사명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와있는 천국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만족해져야 된다는 거죠.

세례요한의 죽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거시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너희가 파송 받아 살아갈 때, 파송 받게 된 이유는 너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천국을 miss하지 않아서 세상을 take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너희 마음은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보충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으로 보낸다.'

자, 이걸 세상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 성형 안 하는 아가씨가 없다고 해요.
거울을 볼 때, 참 내 얼굴이 못 생겼습니다.
이때 얼굴이 못 생겼다고 불만을 갖게 되면 miss and take 한 겁니다.
천국을 miss해버리고 내 얼굴을 take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mistake요 죄입니다.
내 사업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사업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miss해서 사업을 take 한 겁니다.
천국을 miss하고 이세상의 무엇을 take한 것이 mistake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급해도, 내 얼굴 못 생긴 게 아무리 불만스럽고, 내 사업문제가 아무리 위기상황으로 급하고, 내 몸의 병이 아무리 급해도 천국을 지나쳐버리지 마세요.
우선은 가장 가까이 있는 천국에 충분히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습성상 천국을 miss해버리고 세상을 take하게 되지요.
세상을 마음에 붙잡게 됩니다.

이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사건이라는 거예요.
죄의 습성상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는 천국을 miss하게 됩니다.
천국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take하는 것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리 뱀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내 못 생긴 얼굴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내 얼굴을 take하기 전에 '아,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러므로 내 얼굴에 대해서도 죽은 자인데 내가 이 성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얼굴을 take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있을 때 내 속에서 천국은 조금씩 조금씩 더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업 때문에 천국을 miss하고 사업을 take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업을 take하려는 마음을 중지시키고 있을 때, 내 속에서 말로만 듣던 천국이 점점 더 현실로서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이렇게 이 세상을 take하려는 순간에 죄의 습성에 못 이겨서 그것을 붙잡으려 할 때,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 죽고 마음을 멈춥니다.
마음을 멈추고 있을 때 십자가에 걸린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서 천국을 점점 더 큰 현실로, 큰 비중의 존재로 느끼게끔 해주고 그곳에 계신 아버지가 현실로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천국과 그 안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을 miss할래야 할 수가 없을 만큼 큰 현실, 제1 되는 현실로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그 천국의 기운이 나의 행복과 만족을 완전히 장악해버릴 때 나는 비로소 이 세상으로 보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miss하고 세상을 마음이 take하는 것, 이게 바로 mistake에요.

이 mistake가 회개하라고 한 죄입니다.
내게 육체보다도 가까이 와있는 천국을 miss해서 지나쳐버려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take하는 mistake를 범하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에 더 가까이 와있는 천국을 miss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take하고 그래서 한없이 많은 mistake로 내 인생을 가득 메워온 이 삶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중단되게 하시고, 내 몸이 죽을지언정 내 마음은 온전한 감사 속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천국에 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